

예술인 협동조합... 광주문화제 새바람 일으킨다

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협동조합 설립이 잇따르고 있다.

다섯 명 이상이 모이면 누구나 출자 규모 상관없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각계각층에서 설립 붐이 일고 있다.

협동조합이 광주지역 문화예술계에도 새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지난 15일까지 광주시에 법인등록을 마친 협동조합 64곳 가운데 10여 곳이 문화예술 관련 협동조합이다. 공예, 한국화, 영화, 음악, 문화교육 등 종류도 다양하다. 문화예술인의 66.5%가 창작 활동과 관련한 월 평균 수입이 100만 원 이하라는 조사결과가 나올 만큼 힘든 문화예술계에서 협동조합이 하나의 돌파구로 인식되고 있는 셈이다.



광주지역 문화예술계에서 공연, 영화, 음악, 기획, 한국화 등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잇따라 설립되고 있다. 사진은 최근 2개 법인이 모여 만든 '한국예술인'이 지난 2011년 진행했던 '광주국제음악제' 모습. <한국예술인 협동조합 제공>

'한국예술인'(이사장 정병열)은 광주지역 클래식 음악계 원로와 예술대 교수, 예술경영 전문가 등 9명과 클래식 법인 문화신포니에라(2004년 설립), 광주국제음악제(2011년)가 함께 설립한 협동조합이다.

10여 년간 정기 음악회, 찾아가는 연주회 등 클래식 공연을 개최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광주시민을 위한 음악회 개최사업 등을 추진한다. 내년에는 무용 관련 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문화 및 관광콘텐츠 개발과 각종 문화사업에 위주로 사업계획을 세운 '상상창작소 봄'(이사장 김경현)도 눈에 띈다. 학생 및 일반을 대상으로 문화 예술교육을 하고, 관광 및 답사 코스를 개발해 시민들에게 문화 여가 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의도다.

문화유산답사, 학술공연, 지역축제 기획, 인문학강좌 등과 함께 민중자서전 발행, 인문 관련 출판물 제작도 구상중이다.

정관당 광주 유교대학 학장, 영점호 광주국제영화제 상임이사 등 발기인이 모여 만든 '아시아문화'(이사장 정환담)도 기지개를 펴고 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광

전체 64곳 중 10곳... 한국화·음악·문화교육 관련 '한국예술인' '상상창작소 봄' '아시아문화' 등 다양

주국제영화제개최지원 사업을 주축으로 5·18민주화운동 독립영화제작 지원과 영상자서전 제작 등을 통한 호남 전통문화 콘텐츠 영상화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호남 정신문화, 우리 가라, 영화 관련 워크숍을 개최하고 지역 문화예술분야 일자리 창출 세미나도 진행한다.

광주시 북구 임동대원시장 환경정비 및 리모델링을 위해 입주한 마을예술단 '아우라 코리아'(이사장 이재길)도 협동조합 등록을 마쳤다. 아우라 코리아는 대원시장 및 임동주민센터 골목 벽화사업과 일인방직 사원아파트 쉼터 조성 등의 사업을 진

행중이다. 앞으로 사회백일장, 사회환경예술제, 예술의 거리 축제 등 기획사업과 예술품공모, 예술품경매, 대여 등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임동에 숲 갤러리로 운영할 예정이다.

'호남고전번역가'(이사장 김광민)는 한국학 세계화를 위해 결성됐다. 민간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학 자료를 수집·보존하면서 미공개 자료를 발굴하겠다는 의도다. 중요 자료는 DB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호남학을 중심으로 연구하면서 장기적으로 한국학 전반으로 관심영역을 확대해 나가기 된다. 국제적인 한국학관련 연

구기관과 교육협력을 활성화하면서 한국학의 세계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각종 교육·연수 프로그램도 함께 개최한다.

'생활문화'(이사장 송재형)는 조합원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품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아트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오색빛'(이사장 김은희)은 전통한지공예를 통한 아동·청소년의 인성·기술교육과 인재육성, 한지공예작품 보급 등 사업을 하게 된다.

이 밖에 청각장애인 디자인 교육, 만화·애니메이션·3D 교육 등을 추진하는 '새마을', 다문화 중심의 문화예술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한국농촌다문화', 지역축제기획,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는 '광주예술' 등도 협동조합 설립을 마쳤다.

문학 속 호남정신 배워요

광주시립민속박물관대학 운영... 100명 선착순 무료

광주시립민속박물관은 일반 시민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제18기 광주민속박물관대학'을 운영한다.

박물관대학은 '의향탐구 시리즈Ⅲ-문학 속의 호남정신'을 주제로 다음달 8일부터 모두 12주 동안 매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2시간씩 진행된다.

'문학 속의 호남정신'은 박물관이 지난 2011년부터 3년간 진행하고 있는 '의향탐구' 시리즈 마지막 프로그램이다.

박물관은 그동안 '의로운 역사의 고장', '호남의 절의 인물'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왔다.

이번 강의에서는 소설가 문순태씨의 '문학에 나타난 호남정신'을 시작으로 임진왜란과 일제 강점기, 해방 이후,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등 역사적 사건을 실화와 '임진록', 송기숙씨의 '녹두장군', 조정래씨의 '태백산맥' 등 문학작품 속에서 조망한다. 10개 강좌와 함께 목포와 보성·장흥 등 문학답사도 두 차례 진행할 예정이다.

등록은 다음달 7일까지 박물관 홈페이지(<http://gjfm.gwangju.go.kr>)에서 하면 된다. 100명까지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62-613-5367.

■ 제18기 광주민속박물관대학 강의일정표

날짜	시간	강사
3월	8일	문학에 나타난 호남정신 - 恨을 생명력과 민주 개혁의지로 승화 (문순태소설가)
	15일	전설에 나타난 호남의 삶과 역사 (나경수(전남대 교수))
	22일	'임진록'의 민중 영웅 - 김덕령을 중심으로 (임철호(전주대 교수))
4월	29일	나라와 운명을 같이 하다, 매천 황현 (정성희(광주보건대 교수))
	5일	근대문학의 산실, 목포(답사) (최성환(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교수))
	12일	송기숙 소설에 드러난 민중의식 (최현주(문학평론가, 순천대 교수))
5월	19일	박화성 소설에 나타난 식민지시대의 현실인식 (김선대(인문, 목포대 교수))
	26일	'태백산맥'과 역사의식 (권영민(문학평론가, 단국대 석좌교수))
	3일	태백산맥과 녹두장군의 고향, 보성-장흥(답사) (김창호(영산강문학회 관장))
	10일	변혁과 희망의 상징공간, 호남시찰 (한순미(전남대 호남학연구원 교수))
	24일	소설 속의 재현된 광주 (정명중(전남대 호남학연구원 교수))
	31일	김준태의 '나의 삶과 시' (김준태(시인, 조선대 초빙교수))

나무·물고기·꽃·곤충... 이미지 재구성

신세계미술제 대상 허수영 초대전, 26일까지 신세계 갤러리

나무 숲 사이를 금붕어가 헤엄친다. 버섯들이 군락을 이루면서 꽃보다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기도 한다. 밀림에 온듯한 작각이 들기도 하고 잘 만들어진 한권의 생물도감을 보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지난해 제14회 광주신세계미술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서양화가 허수영씨의 초대전 '3852pages, 5725images'가 오는 26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에서 열린다.

허씨는 이번 전시에서 바다 속 생물, 물고기, 꽃, 곤충 등 사진집에 담긴 이미지를 재구성한 작품 '한 권의 책, 한 점의 그림' 시리즈

를 선보인다. 자신만의 조형언어를 담아가는 방법론의 참신함과 이미지를 조합해가는 집약된 페인팅이 돋보인다.

'3852pages, 5725images'는 작품 제작에 사용된 책의 페이지 수와 그 속에 담긴 이미지의 수를 의미한다.

작가는 "테디베어 책을 보곤 정물화를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했고, 버섯도감을 보곤 풍경화를 그릴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시도해봤다"고 말했다. 문의 062-360-1271.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수족관 & 물고기(Aquarium & pondfish)'

대인시장·예술의거리 문화사업 결과 전시

광주문화재단, 19~21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일상과 예술이 만나는 곳' 대인시장과 예술의 거리에서 진행된 문화 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가 마련된다.

광주문화재단은 19일부터 21일까지 빛고을시민문화관 1층 미디어큐브338 전시실에서 '2012년 아시아문화예술활성화사업 결과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 1년간 대인시장과 예술의 거리에서 진행된 모든 문화예술프로그램 및 행사 성과를 사진, 영상, 참여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인예술시장은 전통시장과 예술이 공존하는 전국적 성공모델로 명성을 얻으며 광주의 대표 문화명소로 자리 잡았다.

특히 초·중·고등학생 및 시민들과 함께 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문화소풍'은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예술의 거리는 특화 프로그램인 아외경매와 미디어야경 등을 통해 한적한 거리에 문화의 숨결을 불어 넣으면서 시민들의 발길을 끌어들였다. 문의 062-670-7453, 7455.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화성학은 무엇인가?'

한국서양음악이론학회 20일 조선포서 교수법 세미나

한국서양음악이론학회가 주최하는 제1회 교수법 세미나가 오는 20일 오후 2시 조선포서 학교 관현악실에서 열린다.

김지현(조선포서 음악교육학과) 교수의 사회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음악대학 필수 교과 과정인 '화성학'을 주제로 다양한 강좌가 마련된다.

송무경, 안소영, 김예진, 이미진씨가 강사로 참여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화성학을 가르칠 방법을 모색하고 연주자들에게 본질적으로

가르쳐야 할 화성학의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한 제언을 하게 된다.

또 연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음악이론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교육전문가와 실제 학생들을 초청, 대담의 시간도 마련한다.

음악 이론 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강좌는 오는 22일 연세대학교 오페라홀에서도 진행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2

창업 30주년 국제보청기

국제 보청기의 정성은 고객 만족입니다

☞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謹賀新年 www.kjhr.com

국제보청기 독일 한사톤(HANSATON) 정품만 취급합니다.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특별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별 서비스요동료 41-0187289호

Be natural Be delicious

주류서비스

-성인1인당, 횡령방문 고객께-

[맥주 or 소주 1병] or [와인 or 생맥주 1잔]씩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음향상이상):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음향상이상): 29,000원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유스퀘어 U-square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유스퀘어 사우나

24시간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인터넷 · 안마기 · 세션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